

전북도 '제뭇찾기' 발걸음 분주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후속조치 이행 위해 국회 방문... 새만금 등 주요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건의

전북도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 안전보호융복합 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국회를 방문했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 한 것은 기재부 2차 예산심의회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 등 주요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 부지사는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소병훈 예결위원,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및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소병훈 예결위원 만찬 자리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의 예산 반영(140억원),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반영(3,900억원)을 요청했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중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반영(10억원)도 함께 최근 지방의회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내로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예정) 법안심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예타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반영(61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액 국비 사업과 '18년 예산 296억원 요청했다.

또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 7월 7일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정치권과도·시군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전북 뭇 찾기의 일핵인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본부 전북 유치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과 내년 국가예산확보에 '새만금 사업' 및 지역공약사업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기재부 단계에서 대폭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했다.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및 향후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재해 위험지구(14개 지구, 30억원)', '급경사지 정비(11개 지구 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8개지구 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1개지구 3억원) 등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도 현안사업중에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을 선정해 지역의원·상임위원별 중점관리 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주 양현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학생 선거 '온라인투표'로 손쉽게

도선관위, 총 4개 선거 진행... 평균 78% 투표율 기록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주 양현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 및 남원 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선거, 19일 무주 구천초등학교와 고창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를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학생회 임원선거 등 4개 선거는 양현고등학교 학생 794명 등 총 1,6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편리함을 직접 경험, 평균 7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학생회 임원선거는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학급별로 각 교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선거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면 PC나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학교선거 및 기관·단체와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선출 등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투표 이용신청 및 방법 등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희망2017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20일 도청 공영장에서 열린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7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 진흥 정무부지사와 이종성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5년마다 재조사 후 안내

전북도는 20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시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가 전국 두 번째로 높은 78.06%의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에 따라 아직 연금

을 수급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도내 14개 시·군과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시민 "서남대 정상화 촉구" 한 목소리

대규모 집회 1700여명 운집

김상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후로 미뤄졌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의 교육부 수용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남원시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2016년 8월, 1,300여명의 남원 시민들과 향우회원들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이날 동참한 시민들의 사발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나, 2017년 현재까지 서남대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원시의회 이정민 의원과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의회 회장, 이상호 서남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남원시민 및 서남대 구성원 등이 원하는 서남대 정상안 방

안 수용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기 심의를 촉구했다.

이에 작년 인원보다 더 늘어난 1,700여명의 남원 시민이 다시 한 번 나섰다.

이날 집회는 전북도 정치권과 전북도민, 기관단체, 서남대 교수 및 총학생회, 남원시민, 사회단체,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재경남원향우회 등 광범위한 참여에 이뤄졌다.

현재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중인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이정민 대표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남원시민들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보여준 남원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은 서남대 정상화라는 결과물을 열리게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1,500여 남원 시민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